

국힘, 명절 뒤 단수공천·경선지 발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트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신청 253개 지역구 847명 지원해 3.35대 1 경쟁률 14일부터 지역별 면접...현역 컷오프·전략공천 지역 관심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 작업을 본격화 했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류심사를 진행해 '부적격자'를 먼저 걸러낼 계획이다.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개 이상의 선거구에 공천을 중복으로 신청한 후보는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新) 4대 약'이나 인사·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경우,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공천 부적격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

행된 후에는 한 번만 했더라도 '공천 아ют'이다. 그 이전엔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전력이 있으면 공천 부적격자가 된다.

공관위는 이런 부적격자를 서류심사로 걸러낸 뒤,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은 일주일 안에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 우선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공천 배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컷오프는 면접 점수와 함께 당무감사 결과, 당 기여도, 여론조사 결과 등까지 반영해 산출한 '교체지수'를 통해 진행한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 충청, 서울 송파·강원·PK(부산·울산·경남), 서울 강남·서초·TK(대구·경북) 등 전국을 4개 권역별로 나눠 해당 권역의 의원 중 하위 10% 이하를 잘라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7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될 전망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

다.

당내 예선이 총선 본선으로 통하는 '덧뱃' 영남권 등 내부 격전지의 공천 결과에 따라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다.

전날 마감된 지역구 공천 신청 접수에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 총 847명의 지원자가 몰려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경북(5.15대 1), 경남(4.69대 1), 부산(4.28대 1), 대구(3.67대 1) 등 영남권 경쟁률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이 전략공천 대상이 될지도 관심사다.

공관위는 앞서 3회 연속 총선 패배로 당세가 약화한 곳 등 최대 50개 지역구에 우선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역구 상황과 인물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우선추천 지역이 50개까지 가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핵심 당직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대 50곳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수도권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우선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비대위원' 김경률, 총선 불출마

총선에서 서울 마포를 출마 의사를 드러냈던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4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며 "속고 끝에 내린 지회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마포를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 비대위원의 마포를 출마를 공개 지지해 사천 논란이 일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 비대위원의 잇단 문제 제기와 함께 당정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증폭됐고, 여권 핵심부 일각에서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이병훈 "금남공원에 주차·침단문화타워 건립"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

이병훈 국회의원(민주·광주 동남)은 4일 "금남로와 충장로에 걸쳐 조성된 금남공원 일대에 주차·침단문화복합타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에 위해 대규모 주차 시설을 포함한 가상·증강현실, e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남공원 일대는 당초 광주시가 도심 속 쉼터를 기대하며 건립했으나, 노숙자들이 많아지면서 시민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해당 일대에 복합타워를 조성해 1층 가상·증강현실 이용 게임룸, 2층 e스포츠 경기장, 3층~7층 주차장, 옥상 루프탑 공원·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복합타워가 생길 경우 아시아문화전당 등과 함께 광주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떠올릴 가능성도 기대된다. 과거 호남 경제의 중심이었던 금남로와 충장로의 상권 회복은 물론 호남 관광의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복합타워는 대형 복합쇼핑몰로 인한 매출액 감소, 상권 쏠림 현상 등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기존 상권을 보호할 수세적 대응책이 아니다"며 "특별한 콘텐츠와 마케팅을 통해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공격적 차원의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조오섭 "한국아텔리움 임차인 보증금 날릴 판"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광주역 한국아텔리움 민간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 중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 유통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한국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몇 세대가 보증보험 갱신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허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국회의원(민주·광주 북구갑)이 4일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설이 시공하고 (유)비알케이가 임대사업자로 돼 있는 광주역 인근 신안동 한국 아텔리움 1차는 총 408세대로 보증금은 총 734억7840만원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가 납부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개별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세대는 310세대로 558억2917만원 달하는 반면 나머지 98세대는 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조 의원은 "HUG와 북구청은 미경신 세대에 대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문금주, 7일 보성읍 선거사무소 개소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문금주 민주당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예비후보는 오는 7일 보성군 보성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 다양한 지역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강력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지역민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맡아 지역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